

# 선과 악, 인간의 내면 전쟁에 대한 神의 해답

아시아 문화 <28>  
원류를 찾아서  
3부 인도편

## 12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기따'

바라나시 = 임동률 기자 exian@kwangju.co.kr

“오! 프리슈나 신이시여. 내 친척들이 싸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전쟁에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내 팔다리만 맵이 풀리고, 입이 타들어 가고, 몸이 떨리고 내 머리카락은 곤두서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 친척들을 죽이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승리와 영광, 왕국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촌형제와 전쟁을 앞둔 아르주나)

“이 전쟁은 정의의 싸움이다. 정의의 싸움에 투신하는 것은 무사가 본래 바라는 바이다. 전투를 피해서는 안된다. 다만 자신의 본분을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문제이지, 일의 성패는 문제삼지 않는다. 당신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오직 행동이지 결코 결과가 아니다. 행동의 결과에 좌우해서는 안된다.” (프리슈나 神)

판다바(Pandava) 형제의 둘째 아르주나(Arjuna)는 사촌들인 까우라바(Kaurava) 형제와 크룩셰트라(Kurukshetra)에서 전쟁을 앞두고 깊은 고뇌에 빠진다. 까우라바 형제의 거짓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유배까지 당한 판다바 형제는 이제 동맹군을 모아 전쟁에 나선다. 하지만 친척을 정벌하기 위해 벌이는 이 싸움에서 아르주나는 과연 이 싸움이 정당한 것인지,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프리슈나 신에게 묻는다.

### 형제전쟁 앞둔 아르주나에 프리슈나 신의 독려

### 운문 700절 구성... '진정한 나'에 이르는 길 제시

프리슈나는 참전을 두려워하는 아르주나를 끊임없이 독려한다. 올바른 것을 찾고, 왕국에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득한다. 프리슈나는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인간은 각자의 의무(Dharma)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무에 충실해야 사회와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인도 철학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알려진 바가바드기따(Bhagavadgita)는 이렇게 프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를 담은 운문 700절로 구성된다. ‘신의 노래’, ‘지존의 노래’라는 뜻으로 알려진 바가바드기따는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일부인데, 수 세대에 걸쳐 내려온 힌두교의 경험과 종교적인 사고가 융합돼 있다.

미약하고, 자신의 행동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아르주나에게 프리슈나는 사욕을 버리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높은 길이라고 강조한다.

두 형제의 전쟁을 앞두고 아르주나와 까우라바 집안의 첫째 듀르다나(Duryodhana) 모두 프리슈나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다. 듀르다나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는 잠을 자고 있는 프리슈나와 동등하게 보이기 위해 거만한 자세로 머리 쪽에 앉아 기다린다. 뒤늦게 도착한 아르주나는 겸손하게 프리슈나의 발 아래에 자리를 잡는다.

잠을 깬 프리슈나는 신으로서 공평한 제안을 던지고, 아르주나에게 먼저 결정할 권리를 준다. 하나는 프리슈나의 강력한 군대인 ‘나라이니 세나’를 주고, 다른 하나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자신이 한쪽 편에 서겠다는 것. 듀르다나가 먼저 선택권을 가진 아르주나가 강력한 군대를 고르면 어쩌나 하는 고민에 빠지자마자 아르주나는 프리슈나를 선택한다. 듀르다나는 크게 안도하며 아르주나를 멸시한다.

아르주나는 프리슈나에게 자신의 전차를 모는 마부가 될 것을 부탁한다. 프리슈나는 기꺼이 응하고, ‘빠르사르띠’라는 이름으로 전장에 나선다.

까우라바군(軍)이 우세한 상황에서 프리슈나는 전략을 짠다. 판다바 형제의 왕위계승자인 유디스티라(Yudhishthira)는 까우라바군 사령관 드루나(Druna)의 아들 아스바따마(Aswatthama)와 같은 이름의 코끼리를 죽이고, 아스바따마가 죽었다고 외친다. 드루나는 유디스티라에게 ‘정말로 아스바따마가 죽었다고 묻는다. 유디스티라는 ‘네, 죽었습니다. (작은 폭소리로 코끼리가)’라고 답한다.

실의에 빠진 드루나는 유디스티라의 칼에 죽고, 전세는 역전된다. 18일의 전쟁이 끝나고 까우라바 형제는 전멸을 당한다. 오직 판다와 형제와 아들들, 프리슈나 등 12명만이 살아남는다. 결국 아르주나는 프리슈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악을 누르고 선을 쟁취했다.

바가바드기따는 인간의 욕망과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 오직 ‘진정한 나’(바가바드기따에서는 아트만(Atman))이라고 표현한다)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친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프리슈나 신(神)은 바가바드기따에서 꽃이나 과일, 나뭇잎, 음식을 신양심과 함께 신에게 바친다면 신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바라나시의 한 주택 옥상에서 아낙들이 신에게 바칠 빠드(papad)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인도 바라나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 세계 지도자들의 영적 지침서 '바가바드기따'



카주라호에서 바가바드기따 강연회가 열리자 주민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인도 카주라호=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내 일상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사전” 간디·스티브 잡스, 애독하며 역경 극복

‘간디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책.’

짧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바가바드기따(Bhagavadgita)를 설명한 문구다. ‘오늘을 위한 인도의 지혜’를 쓴 작가 잭 홀리(Jack Hawley)는 이렇게 표현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생전에 “이 책은 일상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나의 사전”이라며 “고민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합당한 행동을 찾기 위해 바가바드기따를 펼친다”고 했다.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제6장에 해당하는 바가바드기따는 베다(Veda), 우파니샤드(Upanisad)와 함께 인도철학과 정신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전으로 추앙된다. 인간의 본성인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신의 대답으로 해답을 찾는데,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집착과 소유욕을 떠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한다. 간디의 비폭력 투쟁의 연원도 바가바드기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정설.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 종교학자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의 신학자까지 읽었던 바가바드기따를 해석해 지침서로 내놓는 추세다. 불교는 물론 기독교에서도 바가바드기따와 비교해 경전을 해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바가바드기따는 80~90년대 미국 경영도서 분야에서 인기를 누리던 ‘손자병법’의 자리를 빼앗고, CEO의 필독서로 올라섰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동양을 대표하는 철학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작고한 스티브 잡스도 바가바드기따를 통해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사오 인도국립문예진흥원 책임비서는 “바가바드기따만 읽어도 인생이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과 질문, 세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차분히 읽어 나가면 마음이 정화되고 스스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카주라호=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날 30% DC)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가족모임(친척, 교회면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헌수막, 케이크 서비스)  
작게 가족 웨딩시 10% DC 휘트니스 시우나 이용시 40% DC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어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단, 본인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과 전 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



New 멤버십 특별모집! 휘트니스 Gold 멤버십,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 로 모십니다.